

메일랩, 서울아산병원과 ‘유방암 AI 진단 모델’ 개발 착수

• 등록 2025-03-09 오전 8:41:11

수정 2025-03-09 오전 8:41:11

김현아 기자

출처:<https://www.edaily.co.kr/news/print?newsId=01148006642101680&mediaCodeNo=25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서울아산병원과 AI 기업 MAILab(메일랩)이 협력하여 유방암 진단을 위한 AI 알고리즘을 개발한다.

아시아 여성에게 최적화된 유방암 진단 모델을 목표로 한다.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인 어제(8일) 발표된 이 소식은 여성 건강을 위한 AI 기술 개발에 대한 관심을 더욱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학희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교수(왼쪽 첫번째), 장연진 메일랩 Chief Medical Officer (왼쪽 두번째), 김희정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교수(세번째), 양동하 메일랩 부사장 (오른쪽). 사진=메일랩

AI 기반 유방암 진단의 새로운 패러다임

유방암은 전 세계 여성 암 사망 원인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특히 아시아 여성들, 특히 한국 여성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치밀 유방’(dense breast tissue) 때문이다. 치밀 유방을 가진 여성들은 기존의 초음파나 엑스레이 검사만으로는 조기 진단이 어렵다.

이에 따라, MAILab 은 4D MRI 데이터를 활용한 AI 모델을 개발하고 있으며, 아시아 여성들에게 특화된 유방암 예측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성 전문가들 주도하는 AI 모델 개발

이번 프로젝트가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여성 건강을 위한 AI 모델이 여성 전문가들의 주도 아래 개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MAILab 의 Chief Medical Officer(CMO) 장연진 박사와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김학희 교수, 김희정 교수 등 여성 의료 및 AI 전문가들이 연구를 이끌고 있다. 이를 통해 더욱 정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엔비디아와 협력

MAILab 은 엔비디아와 협력하여 개발하고 자체적으로 사용 중인 AI 슈퍼컴퓨터를 통해 방대한 의료 영상 데이터를 빠르고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다.

이 슈퍼컴퓨터는 2 petaFLOPS(페타플롭스)의 연산 성능을 자랑한다. 기존 유방암 AI 모델들이 주로 서양 여성의 지방 유방 조직을 기준으로 설계된 것과 달리, 이번 모델은 치밀 유방을 가진 아시아 여성들에게 최적화된 세계 최초의 AI 진단 모델로 기대를 모은다.

MAILab 의 장연진 CMO 는 “이번 프로젝트는 유방암 조기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 전문가들이 직접 개발에 참여함으로써 더욱 의미가 크다”며, “MAILab 의 기술이 여성 건강을 위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MAILab 은 자체 AI 엔진(i2Brain), AI 슈퍼컴퓨터, Vision AI Framework, MEGA Image AI Platform 등을 기반으로 다양한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현재 미국, 캐나다, 중국, 인도에 엔지니어링 및 마케팅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 AI(선천성 심장병, 유방암 진단)와 로봇 물류 AI, 뷰티 AI 등을 개발하고 있다.